

there 구문의 분석: 연쇄이론과 최소이론

이 상 오
(전북 산업대학교)

Lee, Sang-Oh(1993), *There-constructions in English: the chain approach and the Minimalist program*. *Linguistics*, vol 1.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a general picture of the principles explaining the various patterns of expletive elements in English *there*-constructions. The discussion will be primarily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GB-theory and the current syntactic theory named *Minimalist Program* by Chomsky(1992). The chain approach to *there* -constructions will be mainly shown by the *argument-headed chain*, which is the extended notion of canonical A-chain and CHAIN. The analysis shown by the Minimalist Program is based on the checking theory.

1. 서론

본 논문은 영어의 *there* 구문에서 허사요소의 다양한 출현형태를 설명하는 원리들에 대한 일반적인 모습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ere* 구문에서의 허사의 출현에 대하여 최근의 Chomsky(1992)의 최소이론(Minimalist Program)에 이르기 까지 통사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분석에 있어서 *there* 구문은 GB이론에서는 격과 의미역에 관련시켜 분석되어 졌으며 *there* 요소의 통사적 지위에 대해 특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 LF 에서는 *there*가 LF 접사(clitic)로 취급되어 어떤 요소의 부가(adjunction)를 요구하는 것으로 Chomsky(1986, 1989)에서 논의 되었고 이 주장에 따라서 Lee, S. O. (1990)는 일반적인 논항연쇄(A-chain)를 확장하여 CHAIN과는 다른 *there* 구문에서의 '허사-논항의 짝'까지 포함시킨 '논항머리연쇄(Argument-headed chain)'의 개념으로 연쇄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there* 구문을 GB 이론의 연쇄이론과 최소이론으로 어떻게 분석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there* 구문의 도출이 PF와 LF에서 수렴하고(converge) 부서지는

54 이상 오

(crash) 여부의 문제를 Chomsky의 최소이론의 하위원리인 검색이론(checking theory)으로 격문제와 더불어 살펴본다.

2. 연쇄이론에 의한 분석

2.1 논항머리어연쇄(Argument-headed chain)

Chomsky(1986)는 다음과 같은 *there* 구문을 연쇄(chain)이론을 확장한 CHAIN 이론으로 설명한다. 다음 문장들을 살펴보자.

(1) There is a man in the room.

- (2) a. There_i seems [t_i to be [a unicorn]_i in the garden]
b. There_i seems [t_i to have been [a unicorn]_j killed t_j in the garden]_{i=j}

(1)에서의 허사와 논항의 집합체인 (there, a man)과 (2a)에서 도출될 수 있는 연쇄들 (there_i, t_i), ([a unicorn]_i)의 확장연쇄인 (there_i, t_i, [a unicorn]_i), 그리고 (2b)에서의 (there_i, t_i, [a unicorn]_j, t_j)_{i=j} 들은 모두 CHAIN이라 정의하며 이들 CHAIN은 보통의 연쇄조건처럼 다음과 같이 의미역과 격이 만족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 (3) a. A CHAIN is Case-marked if it contains exactly one Case-marked position: a position in a Case-marked CHAIN is visible for θ -marking.
b. A CHAIN has at most one θ -position: a θ -position is visible in its maximal CHAIN.
c. If $C=(a_1, \dots, a_n)$ is a maximal CHAIN, then a_n occupies its unique θ -position and a_1 its unique Case-marked position. (Chomsky(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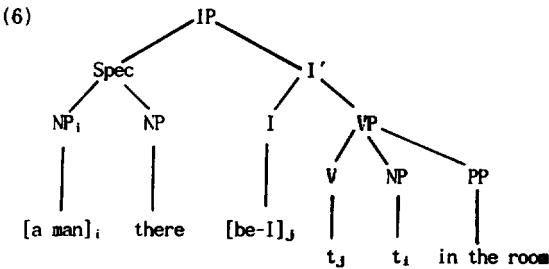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비문들을 설명하고 있다.

- (4) a. *There hit John.

- b. *There's fear of John.
- c. *There to hit John is forbidden.
- d. *It is unbelievable there to be a monster in the street.
- e. *There seems to have hit John.

그런데 일반적인 연쇄와 허사와 논항의 짝까지 포함하는 이 CHAIN은 논항이 그 연쇄의 머리어가 되는 일반적인 논항연쇄 (A-chain)의 속성을 갖추지 못하고 허사인 비논항 *there*가 연쇄의 머리어가 되고있다. Lee, S. O. (1990)에서 이와 같은 비일반성의 해결책으로 CHAIN을 제거하고 연쇄는 이동에 의해서만 형성된다는 가정아래 기존의 논항연쇄를 포함한 논항머리어연쇄 (Argument-headed chain)로 일반화를 기한다.¹ 이 일반화는 Chomsky (1986, 1989)의 제안에 그 기초를 둔다. Chomsky에 따르면, 허사 α 는 '탈락의 복원성(recoverability of deletion)'의 조건에 따라 α 가 LF에서 어떤 동지표 표시된 요소 β 에 의해서 대체될 수만 있으면 소거(deletion)될 수 있다. 따라서 LF연쇄 ([A-E], ..., t_A)가 도출된다.² 그러면 (5)의 LF구조는 논항 *a man*이 허사 *there* 자리로 부가된 (6)처럼 표시될 수 있다.

(5) There is a man in the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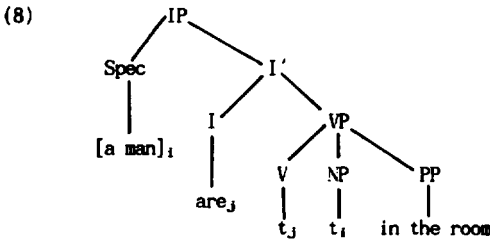
(6)에서 허사 *there*가 소거되면 허사에 부가된 논항이 주어 명사구에 논항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결과에 이르러 LF에서 도출된 연쇄 $(a\ man)_i, [be-I]_j, t_j, t_i)_{i=j}$ 는 앞에서 언급한 일반화의 결과인 논항머리어연쇄가 된다.³

2.2 자질 점검규칙(Agreement Checking Rule)

만일 S구조에서 일치(agreement)가 적격하게 되어있지 않으면 그 부적격한 일치는 LF에서 도출된 논항머리어연쇄에 의해서 점검받게 된다.⁴

다음 문장 (7)을 그 LF구조인 (8)과 더불어 보자.

(7) *There are a man in the room.



IP의 Spec과 머리어는 그들사이의 자질일치에 의해 동지표 표시된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수 일치는 구조에서 (7)처럼 S구조에서 이미 잘못 되어있다. 따라서 이 두 요소는 LF에서 각각 그 두 요소가 머리어가 되는 독립연쇄(independent chain)인 ([a man]_i, t_i)와 (are_j, t_j)를 이끌게 되는데 이 두 연쇄는 서로 다른 지표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확대된 연쇄로 합칠 수 없는 결과에 이른다.⁵ 즉, 동지표 표시된 요소들이 구성소가 되는 두개의 독립연쇄들이 도출될 수 밖에 없다. 만일 이들이 한 연쇄가 된다면 구성소들이 서로 다른 지표를 가진 하나의 논항 머리어연쇄가 되어 버릴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막는 자질의 점검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질 점검규칙'을 제안한다.

(9) 자질 점검규칙(LF)

IP의 Spec과 머리어 사이에서 논항 머리어 연쇄를 끊지 말아라.

이 규칙은 (8)이 IP의 Spec과 머리어 사이에서 논항 머리어연쇄가 끊기지 않았어야함을 말해준다. 그러나 (8)로부터 IP의 Spec과 머리어사이에서 끊기는 두개의 독립연쇄들이 도출된다. 따라서 (9)의 자질 점검규칙을 여기므로 (7)은 잘못된 일치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판정된다. (9)는 이와 같이 잘 못된 일

치를 점검해 주는 장치가 되고 ($[a \text{ man}]_i, is_j, t_j, t_i)_{i=j}$ 라는 확장된 논항 머리어연쇄가 LF에서 생성되어야 그 문장의 적격한 일치를 받을 수 있음을 밝혀준다.

*there*와 관련된 다음의 문장들을 고려해보자.

- (10) a. I want there to be *a man* in the room.
 b. I want there to be *some men* in the room.
- (11) a. There seems to be *a man* in the room.
 b. There seem to be *some men* in the room.
- (12) a. *There seem to be *a man* in the room.
 b. *There seems to be *some men* in the room.

위 문장들의 종속절 내에서처럼 일치현상을 포함하지 않는 *there* 구조들은 종속절 내에 Infl(AGR)을 포함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9)와 같은 자질 점검규칙을 받는 연쇄현상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10)의 문장들을 인상술어를 포함한 (11-12)의 문장들과 비교해 보자. (10a-b)에서는 단수 *a man*이나 복수 *some men*이 둘 다 나타날 수 있지만, (12a-b)에서는 (11)과 (12)의 대조가 보여 주듯이 이 요소들은 주절의 인상술어 *seem*과 수일치를 보여야한다. 이동 없이는 연쇄형성이 불가능함을 가정하여 (10a-b)는 S구조에서는 연쇄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11a)의 D구조는 Chomsky(1986)에서 가정된 (14a)와는 달리 (13)으로 가정한다.⁶

(13) There seems_{[IP[NPE]]} to be a man in the room]

- (14) a. [[NPE] seems [IP there to be a man in the room]
 b. There_i seems [IP t_i to be a man in the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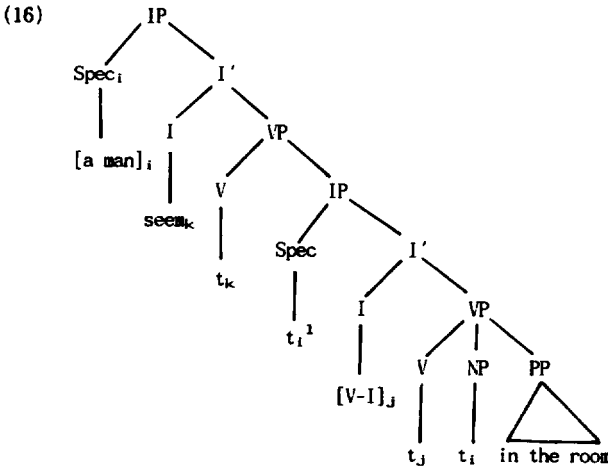
문장 (11a)는 Chomsky(1986)에서는 (14a)의 *there*를 주절의 주어위치로 인상함으로써 도출한다. 따라서 ($there_i, t_i, [a \text{ man}]_i$)의 연쇄가 형성된다. 그러나 (11a)의 D구조를 (13)으로 가정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seems*의 주어위치의 비논항 *there*는 그 위치가 비논항위치(non- θ -position) 이므로 합

58 이 상 오

법적이다. 그러면 비논항이 비논항위치에 자리해 있다는 사실은 D구조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며 (13)의 종속절 IP의 Spec 위치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⁷ 따라서 (11a)는 이동 없이 생성되는 문장이며 S구조에서는 연쇄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제 만일 LF에서 논항이 인상된다면 S구조에서 정립된 일치를 점검하는 논항머리어연쇄를 도출해낼 수 있다. 아마도 (12a)에서 잘못 정립된 일치기 LF연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점검되어질 것이다.⁸

(15) *There seem to be a man in the room.



최대연쇄=
 ([a man]_i, seem_k, t_k, t_i¹, [to-be]_j, t_j t_i)_{i=j=k}
 독립연쇄들=
 ([a man]_i, t_i¹, [to-be]_j, t_j, t_i)_{i=j}
 (seem_k, t_k)

그러나 (16)에서 결국 두개의 다른 독립연쇄들이 형성되는데 LF에서 최대연쇄는 이들 독립연쇄들로 분할되지 않았어야 했다. 따라서 이 연쇄들은 (9)의 '자질 점검규칙'을 어긴다. 그러므로 (15)에 정립된 일치는 잘못된 것으로 예견된다. (10a-b)의 경우, a man과 some men은 there 위치로 LF이동을 하게 된다.⁹ 그러나 이러한 LF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종속절은 그 주어의 수 일치를

가져올 AGR이 없기 때문에 주절의 동사 *seem*의 수 자질(number agreement)은 *a man*이나 *some men*의 LF이동에 의해서 점검될 수는 없다. 달리 말하면, 종속절의 이동된 LF주어는 S구조에서 정립된 일치를 점검할 AGR이 없다. 따라서 *a man*과 *somenen*은 둘 다 (10a-b)의 위치에 각각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

2.3 격전달(Case Transmission)과 가시성조건(Visibility Condition)

그러면 CHAIN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격전달(Case transmission)이란 있을 수 없는 셈이 되는데 위 문장들에서의 *a man*은 격여과(Case filter)를 어떻게 충족시킬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격전달의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위해 다음 문장들을 보자.

(17) a. *There seems a man to be in the room.

b. *I consider there a man.

만일 격전달이 가능하다면 위의 문장들의 비문법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CHAIN의 속성에 따라서 위 문장들의 논항 명사구 *a man*을 살펴보면 *there*가 받은 격이 CHAIN을 통해서 *a man*에게 전달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만일 격전달이 이루어졌다면 (17a-b)는 문법적이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Epstein(1987)은 (13)의 *a man*은 격여과의 위반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계사 *be*에 의해 직접 격표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 문장들을 보자.

(18) a. I want there to be a man outside.

b. *I want there to be usually a man outside.

격표시될 수 있는 *there*를 포함하고 있는 CHAIN (*there, a man*)은 의미역을 부여받는데 있어서 가시성조건(Visibility Condition)에 의하여 가시적이다. (18a-b) 문장들의 대조를 구별짓기 위하여 Epstein은 (18a)의 *be*는 *a man*에게 직접 격을 부여한다고 가정한다.¹⁰ 그러나 (18b)의 *a man*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be*와 *a man*은 서로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Stowell(1981)의 격인접조건(Case-adjacency Condition)을 위반하기 때문이다.¹¹

그러면 가시성조건을 점검해 보자. 가시성조건은 논항이 의미역을 부여

60 이상 오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는 조건으로서, 논항은 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거나 격부여될 수 있는 허사를 포함한 *there* 문장에서 처럼 그 논항이 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위치와 연결(link)될 수 있거나 해야지 만이 의미역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가시성조건은 CHAIN의 적격성조건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가시성조건은 다음과 같다.

- (19) The Visibility Condition Suppose that the position P is marked with the θ -role R and $C = (\alpha_1, \dots, \alpha_n)$ is a chain. Then, C is assigned R by P if and only if for some i, α_i is in position P and C has Case or headed by PRO.

The chain $C = (\alpha_1, \dots, \alpha_n)$ has the Case K if and only if for some i, α_i occupies a position assigned by β .
(Chomsky(1981: 334))

그러나 다음 문장들을 고려해보자.

- (20) a. We consider [there to be a man in the room]
b. *We consider [there a man in the room]¹²

- (21) *I want [there to be usually a man outside]
(Epstein(1987: 266))

- (22) a. It is unbelievable [for there to be a monster in the street]
b. *It is unbelievable [there to be a monster in the street]

(20a-b)에서 가시성조건에 의하면 *there*는 *consider*에 의하여 격표시 되는 위치에 있으므로 분명히 Chomsky의 CHAIN (*there, a man*)은 의미역이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20b)는 문법적으로 잘못 판정된다. 가시성조건은 (21)역시 문법적인 문장으로 잘못 예견한다. CHAIN (*there, a man*)에서 *there*는 격표시되는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가시성조건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20b)와 (21)은 가시성조건으로는 비문법성을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HAIN에 대한 가시성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20b)와 (21)의 비문법

성을 이들 문장들이 그냥 격여과를 어겼으므로 비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20b)에서 *a man*은 Epstein의 가정대로 계사 *be*가 없으므로 그리고 (21)에서는 격인접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a man*이 각각 격여과를 어기고있다. 이러한 격여과를 위반한 경우로서 (22a-b)의 문장들의 문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시성조건이 CHAIN의 적격성조건으로 행동하기에는 너무 강력함을 알 수 있다. CHAIN이 (19)을 충족함으로써 의미역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다음의 CHAIN 자체의 적격성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CHAIN은 적격하지 않다.¹³

(23) If $C=(\alpha_1, \dots, \alpha_n)$ is a maximal CHAIN, then α_n occupies its unique θ -position and α_1 its unique Case-marked position.

(Chomsky(1986: 137))

그러나 (21)의 문장에서는 CHAIN의 적격성조건과 CHAIN의 의미역 부여조건으로 작용하는 가시성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21)은 잘못된 문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시성조건외의 강력성에 대한 논의는 앞에서 언급했던 CHAIN의 개념을 소거하는 제안을 뒷받침 해준다.

3. 최소이론에 의한 분석

Chomsky(1992)의 최소원리는 형태론적 자질 중심의 문법이론으로서 문법적으로 의의 있는 계층(level)은 PF와 LF로 축소된다. 이 이론은 모든 잘못된 구문의 도출을 PF와 LF에서 모두 걸러내야 한다. 문법적 도출의 기본요인으로서 형태론적 특성 또는 자질(morphological properties or features)이며 문법적 체계와 비문법적 체계 사이의 접합점인 PF와 LF에서 문법적 체계를 통해 도출된 구조가 최종적 점검을 받게 되는데, 그 점검에 두가지를 설정하게 된다. 한가지는 수렴(convergence)의 점검이고, 다른 하나는 해석(interpretation)의 점검이다. 수렴의 점검은 접합점에 도달한 구조의 모든 요소가 그 접합점에서 접합되는 비문법적 체계에 의해 해석되기에 적법한 요소(legitimate object)인가하는 점검이다. 이와 같은 수렴의 점검에서 통과된 요소들은 해석의 점검을 받게 되는데, 이 점검은 이 요소들이 그 접합되는 비문법적 체계에 의해 적절한 해석을 받게 되는가 하는 점검이다. 그리고 이 요소들의 점검시 적법한 요소가 되지 못하거나 적절한 해석을 받지 못하면 그 도

62 이 상 오

출은 부서진다(crash).

점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검은 점검자와 피점검자 사이의 일대일의 과정이다. 즉, 하나의 점검자는 한번에 두개의 피점검자를 점검하지 못한다. 둘째, 모든 점검자들은 음성적으로 소리나지 않는 기능적 요소들이다. 그러나 목적격의 점검자로서의 동사는 AGR_o로 동사인상후의 복합체인 [AGR_o V + AGR_o]를 구성한 후 점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제소 T와 VP의 머리어인 V가 격자질의 점검자가 되는데 이들 역시 T는 AGR_s로, V는 AGR_o로 인상되어 형성된 복합체들이 Spec-head 일치에 의한 격을 점검한다. 셋째, 피점검자들은 어휘적 요소들 또는 그들의 흔적들이며 자유형태소(free morpheme)들이다. 또한 점검자들의 자질들은 점검의 역할을 수행한 후 사라진다. 그러나 피점검자들의 자질들은 적절한 해석을 받기 위해 LF에 까지도 그 자질들이 남아있게 된다. 점검과정에 있어서 점검자들과 피점검자들의 점검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4)	점검자	점검	피점검자
a.	AGR _s 의 N 자질	—————>	주어의 ϕ 자질
b.	AGR _o 의 N 자질	—————>	목적어의 ϕ 자질
c.	AGR _s 의 V 자질	—————>	동사의 ϕ 자질
d.	AGR _o 의 V 자질	—————>	동사의 ϕ 자질
e.	T의 N 자질	—————>	주어의 주격
		(AGR _s 를 통하여)	
f.	T의 V 자질	—————>	동사의 시제 자질
g.	V의 N 자질	—————>	목적어의 대격

(Lee, P. H. (1993))

문법적 도출의 경제원리는 Chomsky(1992)의 최소이론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언어적 표현은 LF와 PF와 같은 접합점에서의 최선의 구현이고 LF와 PF야말로 최적성이 UG의 경제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지점이라고 한다. 이기성 원리(Greed)와 지연성 원리(Procrastinate)는 이러한 경제원리의 하위 원리가 된다. 이기성 원리란 어떤 문법적 요소가 어떤 문법적 작용으로 α -처리될 때는 그 문법적 작용이 그 문법적 요소에게 이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오로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작용만 한다는 경제 원리이다. 격자질의 점검을 받는 이득을 위해서만 시제소(T)의 강한 명사 자질에 이끌림을 당하는 명사구의 α -이동은 이러한 이기성 원리로 볼 수 있다. 지연성이란 모든 문법 규칙

은 가능한 늦게, 가능한 LF에서 적용되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꼭 적용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원리가 요구하는 바는 만일 이동이 눈에 보여야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이동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영어에서는 동사가 LF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동한다. 왜냐하면 AGR의 약한 동사적 자질은 문자화(SPELL-OUT) 이전에 동사를 점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1 격점검(Case checking)

LF이론으로 Chomsky(1986)는 *there* 구문에서 논항 명사구가 *there*의 격을 인가 받기 위하여 허사자리로 이동함을 제안하였다. Belletti(1988)는 이러한 분석을 부정하고, 존재구문 (existential construction)과 비대격 구문 (unaccusative construction)에서의 비한정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 제안은 *be*와 비대격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부분격(partitive)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격은 다음과 같이 존재양화(existential quantification)와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고(25a) 전칭양화 (universal quantification)나 한정성과는 관련이 없음을 보이고 있다 (25b-c).

- (25) a. There is a man here.
 b. *There is every man here.
 c. *There is the man here.

Chomsky(1992)의 최소이론은 이동은 오직 형태론적 요구(morphological requirements)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there* 구문에서 논항 명사구의 적합한 형태론적 요구는 명사구가 *there* 자리의 주어 위치로 이동하지 않아도 만족될 수 있다. 즉, 격을 인가 받기 위한 이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또한 *there*의 의미적 결합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다음 문장을 보자.

- (26) There is [_{NP} a strange man] in the garden.

위 문장에서 NP *a strange man*은 격 점검(Case Checking)을 위한 적절한 자리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명사구는 LF에서 인상되어 LF접사인 *there*에 부가되

64 이상오

어야 한다. 다음 문장을 보자.

- (27) *There seems to [PP [NPA strange man]][that it is raining outside]]

이 경우에는 명사구가 전치사구 내에서 격 자질이 충족된다. 따라서 이 명사구는 LF 인상이 금지된다. *there*에 관한 한, Chomsky는 이 홀로 남게 된 허사는 모든 형태론적 요구가 충족된 LF의 적절한 대상이 되므로 이 문장의 도출은 구조적으로는 수렴한다고(*converge*) 한다. 그러나 해석 상으로는 수렴하지 않는다. 이것이 Chomsky의 이동에 있어서의 '최후수단(Last Resort)원리'이다: "Derivations are driven by the narrow mechanical requirement of feature checking only, not by a 'search for intelligibility' or the like." 최후수단은 자급적(*self-serving*)이다. (27)에서 명사구는 자신이 인상되어 LF 접사 *there*의 부적절한 결합을 매꿔준다 하더라도 그 명사구 자신의 요구조건이 인상되지 않더라도 충족되기 때문에 인상이 막힌다.

(26)의 예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LF 이동을 감행하게 했던 것은 격에 대한 요구조건이었다. 그러나 다음 문장 (28)에서 *a strange man*의 눈에 보이는 이동은 두가지 다른 요구조건을 만족시킨다.

- (28) A strange man is t in the garden.

(26)에서 처럼 (28)의 *a strange man*은 그 격을 인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연성원리(*Procrastinate*)에 의하면 이것 만으로는 눈에 보이는 이동을 허락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이동은 가능한 한 LF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그것 보다는 이동이 필요한 이유는 시제소(T)의 강한 NP 자질인 것이다. 다음 문장을 보라.

- (29) e is a strange man in the garden.

만일 눈에 보이는 이동이 이 문장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PF는 시제소의 강 자질을 포함한 채로 표시된다. 이 자질은 PF의 적절한 대상이 아니므로 그 도출은 수렴하지 않고 부서진다. 그러나 만일 명사구가 이동된다면 (28)처럼 *a strange man*의 격은 점점 받게 되고 시제소의 강자질은 지워져서 그 PF는 수

럼하게 된다.

문장 (30)을 다시 살펴보자.

(30) There is [_{NP} a strange man] in the garden.

Chomsky에게는 NP의 LF이동은 단지 그 명사구의 격 충족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가 시사한 허사 *there*의 부적절한 결합은 완전히 해석적인 입장에서 이지 형태론적 입장은 아니다. 홀로 남게 된 *there*는 모든 형태적인 자질들을 점검 받고 구성소가 하나인 논항연쇄를 이끄는 적법한 대상이다. 확대 투영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는 시제소의 강한 자질로부터 나온다. 시제소는 눈에 보이는 통사부에서는 어떤 자질을 점검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적격한 PF 대상물이 남아있게 되고 그 도출을 부서지게 한다. 중요한 것은 시제소가 자질을 점검하고 나면 그 강 자질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확대 투영원리가 충족되든 않든, 수렴된 PF를 얻을 수 없다.

여기서 Lasnik(1993)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30)에서 시제소는 눈에 보이는 통사부에서 *there*의 격을 점검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도출은 PF에서 부서진다. 그런데 점검 후에는 시제소의 자질은 사라진다. 이것은 *a strange man*이 LF에서 *there*에 부가될 때 시제소의 자질이 *a strange man*의 격 자질을 점검하는데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there*와 부분격(Partitive Case)

Lasnik(1993)은 위에서 명사구 *there*의 이동을 다른 동기에서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Belletti(1988)에 따르면, Italian에서 비대격 동사는 의미역 자리인 목적어 자리외 명사구에 본유적으로(*inherently*) 부분격(*partitive*)을 수의적으로 부여하고 그 명사구는 반드시 비한정 명사구로 실현되어야 함을 보이고 있다.

(31) a. All'improvviso è entrato un uomo dalla finestra.
suddenly entered a man from the window

b. *All'improvviso è entrato l'uomo dalla finestra.
suddenly entered the man from the win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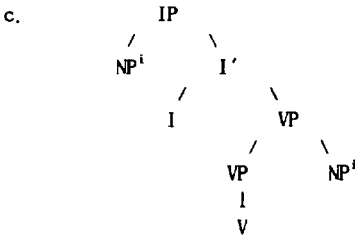
66 이 상 오

- c. Era finalmente arrivato qualche studente a lezione.
arrived finally some student to the lecture
- d. *Era finalmente arrivato ogni studente a lezione.
arrived finally every student to the lecture

또한 동사 뒤의 한정명사구는 VP에 부가되어 위치 적으로는 목적어가 부여되는 자리인데 주격이 실현됨을, 일반적인 타동사가 목적격을 부여하는 구조적인 격부여처럼 Infl에 의해서 동사 뒤의 명사구에게 구조적인 주격을 부여한다고 설명한다.

- (32) a. È arrivato Gianni
arrived Gianni

- b. $[_{IP}[_{NP} \text{expl}]^i [_{I'} I [_{VP}[_{VP} \text{è arrivato}] \text{Gianni}^i]]]$



이러한 격부여 방식에 따르면, 영어의 *be* 동사와 비대격 동사는 격을 점점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본유격인 부분격이 부여된다면 그 동사와 명사구는 머리어와 보충어 관계로 그 자리에서 격을 점점 받을 수 있겠고, 구조격이 주어진다면 목적격처럼 LF에서 AGR_o의 SPEC 자리에서 점점 받게 된다. 그렇다면, Chomsky(1986)에서의 방식대로 *there* 구문에서의 명사구는 연쇄나 CHAIN을 통한 격전달 방식으로 격을 인가 받을 필요가 없다. 격 전달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Belletti(1988)에서 보여지는 Italian 문장에서 연쇄를 통한 격 전달의 방식이 아닌 Infl에 의해 직접적으로 구조격 표시함으로써 목적어 위치에 주격을 실현하게 하는 방식에서도 시사되어 진다.

부분격에 관한 한, Belletti(1988)는 부분격을 갖는 명사구는 항상 비한정적인 의미를 선택함을 관찰하여 한정적 명사구는 배제됨을 제안한다. 영어의

there 구문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문장들을 보자.

- (33) a. A man comes to the station.
 b. The man comes to the station.

Milsark(1974), Safir(1985)가 밝히듯이 동사 앞 주어 위치에는 (33a-b) 처럼 한정적 명사구와 비한정적 명사구가 둘 다 가능한 반면, 동사 뒤 주어 위치에는 (34a)처럼 비한정적 명사구만이 가능하다.

- (34) a. There comes a man to the station.
 b. *There comes the man to the station.
 c. *There arrived every ship at the harbor.
 d. *There is John that I had met last night.

Sohn(1992)은 동사 앞 주어는 주어로서의 자격을 고수하면서 이동된 동사에 의해서 부분격이 주어진다고 제안한다.¹⁴ 따라서 다음 (34a)의 D 구조와 S구조는 각각 (35a)와 (35b)가 된다.

- (35) a. [_{IP} there [INFL [_{VP} a man [_{V'} come to the station]]]
 b. [_{IP}there [INFL + come_i [_{VP} a man [_{V'}[_{t_i}] to the station]]]

논항인 명사구 *a man*은 문법적 주어로서 '동사구 내(內) 주어 가설 (VP-internal subject hypothesis)'에 따라 일반적인 주어처럼 (35a)의 위치에 생성된다. Chomsky(1986)는 *there*와 연결된 명사구가 LF에서 *there* 위치로 인상되어 *there*와 통지표를 갖게 되어 *there* 위치로 대치(substitution) 됨을 고유격은 구조격과 결합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능력을 가정한다. 그러면 (35a)에서 부분격은 주격과 결합하기 위해서 이동을 감행한다. 이동된 동사(핵 이동)는 시제소와 일치 자질을 가진 INFL과 결합하여 VP 내적인 주어 *a man*에 부분적 주격(nominative-partitive Case)를 부여한다. Sohn의 이 가정은 주어와 동사의 일치문제, 명사구의 비한정적 효과들을 설명한다. 즉, (35)의 *a man*은 주어이며 결합된 동사 [INFL + arrive]는 부분적 주격을 부여한다. 주격은 주어와 동사사이의 일치를 점검하게 되고 Belletti(1988)의 가정대로 부분격은 동사 뒤의 명사구의 비한정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Lasnik(1993)이 제기한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부속어

68 이상 오

(associate)는 LF에서 주어 위치에서 그 격을 점점 받을 필요가 없다.

(36)의 문장을 다시 한번 고려하자.

(36) e is a strange man in the garden.

a *strange man*은 제 자리에서 *is*에 의해 본유격을 점점 받게 되고 시제소는 자질을 점점할 요소가 없기 때문에 시제소의 강 자질은 PF까지 남게 되어 (36)의 도출은 부서진다.

3.3 *there* 요소의 문제

there 요소를 어떤 의미적 역할이 없는 비논항으로 취급하는 Chomsky(1986)의 접근에 반하여 Chomsky(1989, 1992)에서는 *there*는 LF에서 그 부속어로 부가에 의해서 대치되는 LF 접사로 취급하여 *there*를 형태론적 부적합한 요소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Lasnik은 만일 *there*의 부속어가 *there*로 LF에서 부가되지 않는다면 그 LF는 부서진다고 제안한다. 이것이 바로 시제소의 강 자질이 일반적인 인상을 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LF에서의 이동을 감행해내는 장치가 된다. 그러므로 그 명사구의 LF 이동이 없이는 비합법적인 LF 대상물만이 홀로 남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생각이 LF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동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이동에 적용되는 똑같은 제약이 가해져야 한다는 영의 가설에 기인한 것이다. 이것은 LF에서의 확대 투영원리가 단지 구조적인 요건만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LF에서 의미역할적 주어와 구조적 주어가 둘 다 함께 병합되어야 만이 LF가 수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결국, Lasnik의 제안은 시제소가 명사구를 눈에 보이는 이동을 하게 하여 점점 후 그 자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명사구는 위에 제시한 방식으로 격 점검을 받은 후 LF가 부서지지 않도록 *there*의 부속어가 LF에서 이동을 하게 하여 시제소로 하여금 점점하게 하는 장치이다.

그러면 (27)의 문장을 다시 고려해 보자.

(37) *There seems to [PP[NPA strange man]][that it is raining outside]

마찬가지로 a *strange man*이 *there*에 이동하지 않더라도 이 명사구와 주절의 시제소의 형태적 요구조건이 만족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there*의 접사적

특성에 따르는 LF에서의 형태적 요구조건은 만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도출은 구조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수렴해야 한다. 여기서 Lasnik(1993)은 *there*의 부속어에 제약을 가한다. 즉, 그 부속어는 (37)에서 처럼 [that-S] 절(*clause*)이 아닌 명사구여야 한다는 제약이다.

(38) *There seems [that John is tall]

(38)는 *there*의 부속어가 절이다. Lasnik은 *there*는 부분격을 가진 명사구에 대한 접사임을 말하고 있다. (37)에서 *to*는 부분격을 점검할 수 없으므로 LF에서 *a strange man*이 *there*로 부가되면 LF는 형태론 적으로 부서진다.¹⁵ (38) 역시 LF에서 절이 이동하게 되면 그 도출 역시 부서진다. 이와 같은 분석이 다음의 도출에서도 적용된다.

(39) *There strikes John that Mary is intelligent.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there*와 *it*가 나타날 수 있는 분포상의 문제이다. 즉, 어떤 원리가 그들의 분포를 통제하는가 하는 것이다. 다음 문장들을 살펴보자.

- (40) a. There walked into the room a man.
b. It was assumed that everyone would leave.
c. There was a man in the room.

- (41) a. *It walked into the room a man.
b. *There was assumed that everyone would leave.
c. *It was a man in the room.

(40a)와 같은 *there* 문장을 Milsark(1974)는 '동사의(外) 구조(outside verbal(OV) construction)'이라 명명하고 (40c)와 같은 구조는 '동사 내(內) 구조(inside verbal(IV) construction)'이라 명명한다. 영어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바 처럼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일반화가 가능하다.

(42) *there*는 그 부속어가 명사구일 때 나타나고 *it*은 그 부속

다음 문장들을 보자.

- (44) a. I want there to be someone here at 6:00.
- b. *I want there someone here at 6:00.

(44a)에서 *someone*은 *be*에 의해서 점점 받을 수 있는 부분격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someone*은 *there*의 모든 접사적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there* 자리로 부가될 수 있다. (44b)에서는 *someone*이 부분격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격을 점점 받을 방법이 없다. 그 결과로 *someone*이 점점 받지 못하여 LF의 형태론적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그 도출이 부서진다.

다음 문장을 보자.

- (45) a. There is likely to be someone here.
- b. *There is likely someone to be here.

there 구문의 소절(*small clause*)분석을 가정하면 (45b)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46) There is likely [someone to be [t here]]

(45a)에서 *someone*은 *t* 자리에서 부분격을 받을 수 있겠고 *someone*이 내포절의 주어 위치로 시제소의 강한 명사구 자질에 이끌려 눈에 보이는 정당한 이동을 한다. 결국, LF부에서 *someone*은 *there* 자리로 부가되어 유일하게 남은 형태론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4. 결론

지금까지 지배 결속이론의 연쇄이론과 최근 Chomsky(1992)의 최소이론에 입각한 일치점점에 의한 방식으로 영어의 *there* 구문이 어떻게 분석되어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영어의 *there* 구문은 항상 비논항인 허사 요소 *there*의 통사 의미적 역할이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통사적으로는 그 의미역과 격의 배당문제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고 이것은 최소이론에서는 PF와 LF에의 수렴을 위한 자질 점점으로 그 분석이 이루어진다. 특히 머리어 이동

(head movement)의 일환인 동사의 이동은 *there* 구문에서 부분격의 부여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았다.

내 용 주

1. 논항연쇄(A-chain)는 근본적으로 명사구의 α -이동에 의해 형성되어 진다. 그러나 허사와 논항의 짝은 α -이동에 의해 연결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정상적인 연쇄는 아니다. 그러나 Chomsky(1986)에서 이들의 짝을 CHAIN으로 병합시킨 것이다. Lee, S. O.(1990)는 연쇄형성은 본래의 의미대로 α -이동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가정하고 CHAIN의 개념을 소거하여 *there*의 LF 이동에 의해 생성된 연쇄를 본래의 논항연쇄에 포함시켜 '논항 머리연쇄(Argument-headed chain)'라 하여 연쇄의 머리어가 위치하고 있는 통사적 위치, 논항 위치(A-position) 비논항 위치(A'-position) 보다는 그 연쇄의 머리어가 논항인지 비논항인지 하는 내용에 비중을 둔다.

2. LF 연쇄 (A-E, ..., t_A)에서 A는 허사와 짝을 이루는 부속어(associate)인 논항을, E는 허사요소를 나타낸다. 허사 *there*와 연결된 논항의 LF 이동은 Chomsky(1989)의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한다: "Considering the status of expletive elements, such as English *there*, or Italian *ci*, or their various counterparts, null or overt, this element receives no interpretation at LF. Therefore, it must be somehow removed. Then, *there* must be treated as an LF-affix to which something must adjoin."

3. *i*의 지표는 '명사소(Spec)-머리어(head) 일치' 규칙에 의해 *j*의 지표가 같아진다.

4. 일반적인 가설에 따르면 *there*는 수를 포함하여 고유인 ϕ 자질이나 범주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자질들은 *there*가 연결된 논항으로부터 삼투된다. 만일 일치가 LF에서 점검되면 그것은 이미 S구조에서 (i)에서 처럼 AGR-S와 *there*가 연결된 논항사이에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i) a. There is a man in the room.

b. There are some men in the room.

5. 독립연쇄(independent chain)란 이동의 결과로써 형성된 모든 흔적들을 최대 연쇄로 묶어서 같은 지표들만 가진 요소들로 독립시켜 형성된 연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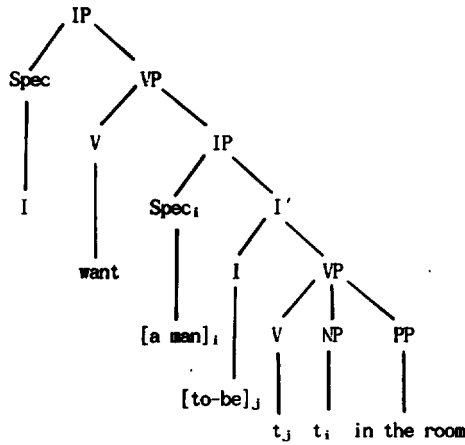
6. (11a)에 대한 D구조를 (13)으로 가정하면 *there*는 D구조에서 S 경계를 뛰어 넘지 않고 논항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요구조건(Chomsky(1986a))을 가능하게 없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D구조의 요구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다음 문장은 S구조에서 격을 필요로 하는 *a unicorn*을 격여과로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i) *There seems [[a unicorn] to be in the garden]

7. 의미역을 보유하고있지 않는 *it*나 *there*가 IP의 빈 Spec자리에 왜 삼입되지 않는나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통사적 요구가 없으면 꼭 이 요소들을 삼입할 필요는 없다.

8. *a man*의 LF 이동시 그것은 종속절 IP의 빈 Spec 위치를 통한 이동이 가능하다.

9. (10a)에서 *a man*이 *there* 위치로 LF 인상되면 다음과 같은 구조와 연쇄를 형성한다.



연쇄 = ([a man]_i, [to-be]_J, t_J, t_i)_{i=J}

Spec과 머리어의 일치에 의해 i와 j의 지표가 동일해지므로 연쇄의 각각의 고리는 선행 사지배(antecedent government)를 만족한다.

10. Epstein(1987)은 Lasnik(1981), Torrego(1984)를 따라 다음과 같은 보충적인 증거를 들고 있다. (18b)와는 대조적으로 다음 문장은 문법적이다.

(i) I think there is usually a man outside.

그에 따르면 Lasnik은 (i)에 대한 S구조를 (ii)로 보고 있다.

(ii) I think there is_i usually t_i a man outside

Lasnik(1981)에 따르면 계사 *be*는 (ii)의 도출에서 인상을 겪게 된다. Spanish에서 동사의 흔적은 격을 부여한다는 Torrego(1984)의 증거자료에 따라 동사의 흔적이 격부여자라는 것을 가정하면 어휘적 명사구 *a man*은 인상된 후 남은 흔적과 인접하기 때문에 *a man*은 격이 부여될 수 있다. 동사인상은 부정사구문에서는 불가능하므로 (18b)에 대한 비교할만한 분석은 가능하지 않다.

11. Stowell(1981)은 격부여에 대한 인접조건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In the configuration [α β ...] or [... β α], α Case-marks β , where

- (i) α governs β and
- (ii) α is adjacent to β , and
- (iii) α is [-N]

12. 가끔 (20b)와 같은 경우에서 주절동사는 절 유사한 명제를 의미선택(semantic selection)하며 주절동사와 그 명제의 술어는 합성적으로 그 명제의 주어물 의미선택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20b)는 주절동사 *consider*가 연결될 술어가 없어서 비문법적이다. 왜 *there*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it*가 올 수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절을 참조하라.

74 이 상 오

13. (20a)나 (21) 둘 다 CHAIN의 적격조건을 만족한다. 논항 *a man*은 (20a)에서는 *to be*와 *in the room*, (21)에서는 *to be*와 *outside*의 합성된 술어에 의해 각각 의미역표시된다.
14. 머리어 이동(head movement)에 의하여 V는 VP의 머리어 위치에서 Infl 위치로 이동한다.
15. 문장 (37)에서 *to* 다음에는 한정적 명사가 오는 경우는 없으므로 *to*는 후행하는 명사구에 부분격을 부여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16. Stowell(1981)의 '격저항 원리(Case Resistance Principle)'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격을 부여할 수 있는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범주에는 격이 부여될 수 없다."

참 고 문 헌

- 양동휘(1992) "지배-결속 이론의 최근 변형과 그 전망," 『언어학과 인지』, 한국문화사.
- Belletti(1988), A. (1988) "The Case of Unaccusative" *Linguistic Inquiry* 19, 1-34.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Praeger, New York.
- Chomsky, N. (1989)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in R. Freidin (ed.)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Comparative Grammar*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91.
- Chomsky, N. (1992)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Number 1, MIT.
- Epstein, S. D. (1987) *Empty Categories and Their Antecedents*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 Lasnik, H. (1981) "Restricting the Theory of Transformations: A Case Study" N. Hornstein & D. Lightfoot (eds.) *Explanations in Linguistics*, Longman Press, New York.
- Lasnik, H. (1993) "The Minimalist Theory of Syntax: Motivations and Prospects" A paper presented at the 2nd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erative Grammar.
- Lee, P. H. (1993) *A Diachronic Study on Word Order in English: The Minimalist Approach*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S. O. (1990) *A Chain Approach to Move- α* Doctoral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 Milsark, G. (1974) *Existential sentences in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achusetts.

- Pollock, J. -Y. (1989) "Verb movement, UG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20 365-424.
- Reuland, E. J. (1983) "A Note on Nonargument Subjects"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and Language Acquisition* Tokyo, Japan.
- Safir, K. (1985) *Syntactic Chai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hn, Y. S. (1992) "There-constructions Reconsidered: Case and Agreement" *Onohak kwa Inji* Hankuk moonhwa sa.
- Stowell, T. (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MIT.
- Torrego, E. (1984) "On Inversion in Spanish and Some of Its Effects" *Linguistic Inquiry* 15, 103-131.

이상오

전라북도 옥구군 임피면 율하리 727

전북 산업대학교 영어과